

헤겔의 관념변증법의 공간화: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연구*

김경수**

주제분류 사회철학, 독일근대철학, 헤겔, 역사철학, 마르크스주의, 문화철학

주요어 시간, 공간, 공간적 전회, 마르크스주의, 지리학, 헤겔, 변증법, 차이, 계급투쟁, 도시, 자본주의

요약문

최근의 공간적 전회를 선도한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에서 인간의 사회적 삶 자체를 공간의 생산의 역사로 재구성하고 이 공간의 성립과 발전 및 전망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각각의 사회는 저마다의 공간을 생산한다. 이 과정 전체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란 큰 틀 안에서 작동한다. 몸은 공간 생산의 주체로서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다. 공간 생산에는 (사회)의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적 공간, 세 가지가 있다. 이 공시적 공간들을 지배하는 운동법칙은 겹치고 상호침투하며 흘러가는 그물망 성격의 것이다. 통시적으로 본 공간생산에는 절대공간, 역사공간, 추상공간, 모순공간, 대안공간으로서 차이공간 등이 있다. 이 흐름을 르페브르는 변증법적 운동으로 포착한다. 르페브르는 공시적인 부분과 통시적인 부분의 연결/융합을 ‘귀납적 차이 안에서 경합하는 생산적 차이’의 개념들로 성취한다. 이것은 후기구조주의시대에 거시적인 역사구성에 변증법을 적용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론적인 성과물을 산출한 드문 예이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7315)

** 고려대학교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 하버마스가 의식철학에 촉구한 「언어학적 전회」¹⁾ 이후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공간적 전회(Spatial Turn)²⁾란 개념이 최근 학문적 논의의 중심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이 틀에서는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서구에서는 시간적 사유가 중심이 되어 인간의 현존을 사유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 결과 현재는 언제나 미래를 향한 하나의 경과점일 뿐,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항상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한다.³⁾ 이런 비판적 입장은 우주 내에서의 인간의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까지 이른다. 18세기말부터 서양의 계몽주의적 근대가 그때까지 일상에서나 예술, 학문에서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신을 철학적으로 해체해 나갈 때 신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시간적 사유이다. 말하자면 구체적 지금과 여기에 사는 인간의 유한성을 무한이란 념을 수 없는 장벽 너머로 이어준 것이 바로 시간적 사유란 것이다. 진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한 시간적 사유는 자주 ‘실존의 견뎌낼 수 없는 궁핍’을 미래의 유토피아로 보충시키기도 했다. 그 참된 이념의 실현이 미래로 지연된 가운데 현재를 기억

-
- 1) Vgl., Habermas, J., *Nachmetaphysisches Denken*, Frankfurt a/M, 1992, S. 52-57.
 - 2) Vgl. Jörg Döring, Tristan Thielmann, (hg.), *Spatial Turn: Das Raumparadigma in den Kultur- und Sozialwissenschaften*, Bielefeld, 2008. 이 중, 특히 소자의 다음 논문이 중요하다. Edward Soja, Vom „Zeitgeist“ zum „Raumgeist“, *New Twists on the Spatial Turn*, 위 책 241-262쪽.
 - 3) 이런 연관에서 푸코의 다음과 같은 기술이 흥미롭다. “베르그송부터였던가, 그전부터였던가? 공간은 죽은 것, 고정된 것, 비변증법적인 것, 정지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반면에 시간은 풍요로움, 비옥함, 생생함, 변증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Foucault, M., "Questions on Geography", in C. Gordon (ed.),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pp. 63-77. 여기서는 에드워드 소자,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이무용 외 옮김, 시각과 언어: 서울, 1997, 21쪽에서 재인용.

없는 미래에 종속시키는 것은 일종의 종말론적 사고를 야기한다.⁴⁾

그렇기에 공간적 전회가 특히 20세기말에 일어난 구 현실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란 세계사적 격변 이후 여러 학문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간적 사유의 한 정점으로서 진보에 대한 사유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성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다 더 지금-여기에 충실하게,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공간이 시간의 지배를 전혀 비껴갈 수 없고 시간을 배제하고 공간의 변화를 언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형용모순으로, 공간적 사유는 필연적으로 시간적 사유를 수반한다. 하지만 ‘공간’ 그 자체에 대한 사유는 “시간적 사유”와는 달리, 무엇보다도 부정적 힘으로서의 현실 그 자체의 견고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며, 구체적 현실적 공간에서의 지양과 그것의 사유에서의 지양과의 지천의 간극을 실감나게 해 준다. 결국 이 공간적 사유는 피안의 세계 보다는 지금-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 전일적인 이념의 지배가 아닌, 구체적 다양들의 소리에 보다 더 귀 기울이기를 권유한다. 이리하여 공간적 사유는 일반적으로, 파편화된 현재로 인해 발생한 소원적 사유(Wunschdenken)가 역설적으로 미래를 지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려 노력한다. 그것은 19세기에 있어 헤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던 마르크스가 그랬고, 「역사철학 테제」에서의 벤야민⁵⁾이 그러하며, 또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사유⁶⁾가 그렇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구

4) 포이에르바하의 헤겔에 대한 형태변화, 즉 신인론이 그 선행형태다. 포이에르바하는 류로서 무한한 수의 인간이 시간적으로 무한에 이르도록 영위하는 삶에서 이성의 궁극적 진보와 완성을 보고 인간을 신과 동격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 영향사 안에서는 일종의 감춰진 메시아주의로 현상한다. Vgl. Feuerbach, L., Über die Vernunft(1826), in *Gesammelte Werke*, hg. von Schuffenhauer, Berlin 1981, Bd. 1

5) 자세하게는 다음을 참조. 김경수, 「벤야민의 ‘역사철학 테제’의 변증법적 재구성: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맑스의 현실변증법과 관련하여」, 『문예미학』 8호, 문예미학사 2001.

체적 감각적 현실에 매몰되는 통속적인 경험론적 사유와는 달리, 지금-여기에 매몰되어 이 너머를 사유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너머’를 정식화하는 사유의 구체적 형태들은 그들 각각이 서로 다르지만 이 ‘너머’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야 구체적 현실에 대해 그들은 항상 발본적으로 비판적일 수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혁명적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은 르페브르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최근의 공간적 전회를 선도한 반스탈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 앙리 르페브르(7)는 『공간의 생산』에서 인간의 사회적 삶 그 자체를 공간의 생산의 역사로 재구성하면서 이 공간의 성립과 발전, 귀결, 그리고 그 전망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⁸⁾ 유물론자로서 그의 출발점은 ‘있음과 없음’이란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헤겔의 『논리의 학』과는 달리, 포이에르바하, 마르크스와 함께, 구체적으로 “몸”이다. 그는 이 몸이 자연과 대응하면서 만들어 내는 공간들의 포개짐, 상호침투와 엇걸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지배관계의 생성 및 그것과의 충돌들을 그려낸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 안에서 커가는 새로운 관계의 탄생도 기획하고 있다. 그의 이런 사유들은 크게 보아 마르크스와 헤겔 비판 및 자본주의체계에 대한 비판을 공유하면서도 마르크스 당대의 사유의 틀을 훨씬 뛰어 넘는 것으로, 방법-내용 모두 새로운 르페브르 고유의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창발적인 르페브르의 공간의 사유를 본고는 특히 헤겔의 관념 변

6) Foucault, M., "Of Other Spaces(1967)", *Diacritics* 16, 22-27 (tr. from the French by Jay Miskowiec)

7) 그의 스탈린 비판에 대해서는 그가 쓴 다음 글을 참조. Lefèbvre, H., Stalin und seine Interpretation des Marxismus, in *Probleme des Marxismus, heute*, 6 Aufl. Frankfurt a/M, 1971.(org. Fr. Problèmes actuels du Marxisme, 1958), S. 116-122.

8)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연구의 사회 역사적, 정치적 배경과 『공간의 생산』이 지리학적 공간학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의미에 대해서는 풍부한 자료를 사용한 장세룡의 다음 연구를 참조. 장세룡,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 역사이론적 ‘전유’의 모색」, 『역사와 경계』 58권, 부산경남사학회, 2006, pp. 293-325.

증법을 공간화 한 사례로서 추적하고 있다. 헤겔 사후 이월 혁명기에 포이에르바하, 마르크스가 걸어간 길,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알튀세 및 후기구조주의자들의 지형학적 사유는 사실, 모두 헤겔 변증법의 공간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호 일치한다. 그럼에도 르페브르는 그의 대부분의 동시대인들과는 달리, 변증법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곳곳에서 변증법을 비판과 지양의 결정적인 자리에 배치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공간의 운동의 서술과 텍스트로서의 공간을 읽어내기 위해 그가 고안하는 많은 개념도구들은 흥미롭게도 약간의 차이와 함께 반-변증법론자인 들뢰즈 등의 저작에서도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거니와 이런 사정은 그의 변증법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더욱 궁금하게 만든다.

이런 관심 속에서 특히 『공간의 생산』에서 사용된 변증법적 사유에 집중하여 기획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 문제를 서술해 나갈 것이다. 먼저 사변 변증법적 체계로부터 연원하는 헤겔의 ‘국가’ 개념의 공간성에 대한 르페브르의 비판을 다룰 것이다. 헤겔에게서 국가 자체는 이미 이념의 공간화가 이뤄진 곳이다. 이에 대한 르페브르의 비판에서 우리는 그가 구상하고 있는 시간성과 공간성의 긍정적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일지를 이미 암암리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르페브르가 새롭게 열어간 “공간 생산론”의 성립과 발전/전개, 나아가 자본주의 체계 내부의 식민화된 공간들을 지양하려는 그의 기획을 서술해 나갈 것이다. 이 가운데 그는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니체, 현상학, 기호학 및 생물학 등 당대 학문의 새로운 조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거시적인 서술이 이뤄져야 할 곳에서는 특히 변증법적 범주들을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의 의의와 그 성과를 특히 방법론의 측면에 집중하여 논하고,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비판과 그 모순의 지양을 위해 르페브르가 변증법적 사유와 비변증법적 사유를 과연 어떻게 종합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평가할 것이다.

2. 헤겔의 절대적 변증법 비판: 탈시간화된 “국가”

포이에르바하와 마르크스에 의해 열려진 헤겔의 절대변증법의 공간화의 길⁹⁾을 방법으로서의 ‘변증법’을 계승하면서 수행한 또 다른 한 사람이 르페브르(1901-1991)였다. 그는 철학적 사유의 공간화를 주장한 일군의 프랑스 철학자들, 푸코(1926-1984), 데리다(1930-2004), 들뢰즈(1925-1995) 등보다는 약 15-20년 위의 학자로, 그의 주저 중의 하나인 『공간의 생산』은 1974년에 초판이 간행되었다. 그가 제시한 공간적 사유는 마르크스의 경우가 그랬던 것처럼 헤겔의 변증법적 사유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요, 근본적인 형태변화를 추구한다. 헤겔은 그에 의하면 “철학적, 정치적 사고가 집결된 기념비적 광장”(64)이다. 하지만 ‘변증법이란 시간적 사유’의 공간화로 이해될 수 있는 헤겔의 국가 개념에서는 이념의 공간화와 더불어 역설적으로 ‘시간성’이 사라져 버렸다고 그는 비판한다. 즉,

“헤겔주의에 의하면, 역사적 시간은 국가가 점차로 확대되며, 지배력을 늘려가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 역사는 개개인 안에서 합리적 존재의 전형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배를 받는 국내영토의 한 부분을 점령하는 제도나 기관, 단체, 부분적인 체계(법, 윤리, 가족, 도시, 직업 등) 등을 통해서 이를 실현한다. 따라서 시간은 움직이지 않으며, 공간에 내재적인 합리성에 의해 고착된다. 헤겔이 보는 역사의 종말은 역사성의 산물의 종말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 사라지는 것은 역사인데, 역사는 행위에서 기억으로, 생산에서 관조로 거듭 변신한다. 그렇다면 시간은, 시간이란 반복과 순환논리, 부동적인 공간, 즉 완전한 이성이 지배하는 공간의 정착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¹⁰⁾(65)

9)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에서 그 윤곽을 설명했다. 김경수, 「지형학적 변증법의 구상: 지형학적 시간과 공간에서의 비-사변적 변증법의 운동방식에 대한 탐구, 『현대사상: 변증법』 제7호, 현대사상연구소, 2010, 1-14쪽 참조.

즉 간단히 말해 헤겔의 절대이념의 공간화로 이해되는 국가에서는 기이하게도 모순의 운동이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변화에 복속되기보다는 그 현존 질서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철학에서 헤겔은 당대 국가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적이지 못한 채, 엉거주춤하게 현존 국가를 인정해 버림으로써 시간과 ‘역사의 수레바퀴’(헤겔 역사철학강의)의 간단없는 운동을 사실상 가로막아 버렸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헤겔 법철학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이성과 현실 간의 엉거주춤한 유화적 성격¹¹⁾ 때문에 마르크스 자신 역시 1843년 쓰여진 그의 『헤겔 국법철학 비판』에서 헤겔의 체계의 문제를 날카롭게 “사변에서 경험으로, 경험에서 사변으로” 무매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¹²⁾ 국가의 공간적 사유와 관련한 르페브르의 헤겔 비판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고 보면 르페브르가 요구하는 것은 헤겔에게서 일어나는 국가의 ‘이념의 운동’에서 시간성의 적절한 복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르페브르가 직접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철학 내재적으로 볼 때 이것은 결국 헤겔의 ‘방법과 체계’에 대한 유물론적 비판에 다름 아니다.¹³⁾

10) 이하에서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서의 인용은 본문 안에 “(쪽수)”로 표기한다. 사용된 대본은 다음과 같다.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에코리브르 서울, 2011. 영어번역본으로는 다음을 참조했다. Henri Lefebvre, *The Production of Space*, tr. D. Nicholson-Smith, Blackwell, Oxford/Massachusetts, 1991.

11) 헤겔은 법철학비판 서문에서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이것을 엥겔스가 그의 『포이에르바흐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에서 현실의 이성화, 이성의 현실화라는 상호 요청과 생성 변화의 개념으로 읽어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헤겔 법철학 자체에서 이런 현실비판적 사유는 튜실한 사변적 체계 저 안 쪽에 깊숙이 감춰져 있어 독자는 세심한 맥락적 독해를 통해서만 이를 찾아낼 수 있다. 헤겔, 『법철학』 I, 임석진 역, 지식산업사, 서울 1989, 32쪽. Friedrich Engels, "Ludwig Feuerbach und der Ausgang der klassischen deutschen Philosophie" in: Karl Marx/Friedrich Engels - *Werke*. (Karl) Dietz Verlag, Berlin. Band 21, 5. Auflage 1975, unveränderter Nachdruck der 1. Auflage 1962, Berlin/DDR. S. 266-267.

12) Marx, K., MEGA2, I/2, S. 40.

헤겔에게서 공간성이 역설적으로, 시간성이 절멸된 이념의 자기 확
인¹⁴⁾에 지나지 않는다면, 르페브르가 보기에 니체에게서는 “다양하게 전
개되며 다양한 시간으로부터 태어나는 반복과 순환성, 동시성”(66)이 공
간이 지닌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동일성의 지배에 저
항하면서 구축한 ‘우연성의 놀이’¹⁵⁾의 니체는 사실, 헤겔은 물론, 마르크
스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적 운동에 의한 역사적 발전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¹⁶⁾ 르페브르는 이런 니체와는 달리, 현대 국가에 대한 비판
적 분석을 통해 다른 출구를 제안한다. 즉 현대 국가는,

“a) (...) 지식과 기술의 기여를 부추김으로써 사회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며, 정권을 잡은 자들의 지배적인 정치 이데올로기,
역사적인 과거,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유사한, 아니 동일한
정책을 강요한다. 국가는 차이를 반복과 순환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시간을 몽개버린다. (...) b)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 안에서는 힘
이 끊어 오른다. (...) 국가적 정상성은 영원한 위반을 강요한다. (...)
새로이 생겨난 부정성, 비극성이 도출된다. (...) 차이들은 최후의 결
정적인 말을 아직 다 하지 못했다. 비록 패배를 거둔 것 같아 보이
지만, 묵묵히 살아남아서 자신들이 견재함을 보여주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며, 시련을 통해서 변신을 거듭한다. c) 노동자 계급 또한 아
직 결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때로는 지하에서, 때로는
광명세계 속에서 묵묵히 제 갈 길을 간다. 계급투쟁은 쉽사리 사라지
지 않는다.” (67-68)

-
- 13) 이에 관한 간단한 서술로는 Vgl. Henri Lefèbvre, Zurück zur Quelle: Marx, b.
Methode, in *Probleme des Marxismus, heute*, 6 Aufl. Frankfurt a/M, 1971.(org.
Fr. *Problèmes actuels du Marxisme*, 1958).
- 14) 이런 이념의 공간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루카치에게는 계급투쟁이다.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65쪽 참조.)
- 15)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옮김, 책세상 서울, 2000, 277쪽.
- 16) 니체의 유물론적 성격과 그 귀결에 있어 헤겔과 마르크스와의 차이는 다음 논문
을 참조. 김경수, 「니체의 진리론과 유물론, 그리고 포스트모던」, 『인문과학연구』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141-160쪽.

국가 자체의 형태변화를 수동적으로 절대이념의 자기운동에 내맡겨 그 국가의 한계에 속수무책인 개인의 삶을 르페브르는 용인하지 않는다. 그보다 그는 헤겔의 객관철학적인 구조 내에서도 ‘끓어오르는 힘’, ‘정상성 안에 항존 하는 부정성’, 반역의 힘을 찾아낸다. 국가는 그가 보기에 현존하는 ‘차이’를 반복과 순환을 통해 균등화/평탄화해 버린다. 이럴 때, 니체의 ‘차이와 반복의 영구회귀’의 틀보다 그가 택한 것은 마르크스의 길로, 차이의 확인 및 부정적 분출로 표현되는 일종의 계급투쟁¹⁷⁾이었다. 르페브르는 19세기 초반의 헤겔에게서는 그의 국가 개념이 가진 탈시간성을 비판하며, 인간의 자기재생산 노동을 자신의 이론의 근원적 출발점으로 삼은 19세기 중후반의 마르크스에게서는 계급투쟁을 선택하여,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20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 이런 틀들은 그가 사회에 의해 생산되는 ‘사회적 공간’을 분석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간, 즉 다른 (사회적) 삶의 공간이며, 다른 생산양식의 공간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제시”(106)하려할 때 가장 중요한 준거점으로 작용한다.

3. 공간 생산의 근원적 주제: “몸”

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각각의 사회는 저마다의 공간을 생산한다. 이 생산은, 암묵적으로 마르크스를 따라, 감각적 대상적 활동을 하는 인간 개인의 자기재생산 및 유적 재생산과정에서 일어나며, 이 과정 전체는 다시 생산력과 생산관계란 큰 틀 안에서 작동한다(78-79). 나아가

17) “계급투쟁은 공간 생산에 개입한다. 각 계급의 분파와 그룹들은 생산의 담당자들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계급투쟁은 공간 안에서 드러난다. 솔직히 말해서 계급투쟁만이 추상공간이 문자 그대로 차이를 말살하면서 지구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계급투쟁만이 차별화 능력, 즉 전략, ‘논리’, ‘체계’로 간주되는 경제 성장에 내재되어 있지 않은 차이점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110)

그는 이것에 자연적인 대상세계에 감응하는 몸의 현상학적 연구 성과를 덧붙인다. 이런 길을 마르크스주의 안의 담론으로 살펴보면, 『1844년 경제철학 초고』와 『독일이데올로기』 등에서 마르크스가 열어 놓았지만, 채 발전시키지 못한 그런 철학적 함축¹⁸⁾을 르페브르가 니체, 후설, 특히 메를로-퐁티 등의 몸의 현상학, 그리고 새로이 정립되기 시작한 사회생물학의 맥락에서 재해석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몸은 공간 생산의 주체로서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다. 몸, 그것은 ‘다양’ 그 자체요 자연적 신체로서 신진대사를 위해 그 밖의 대상세계와 감응하는 몸이다. 그리하여 “공간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로서의 공간적인 몸은 직접적으로 대칭, 상호작용, 행위의 상호성, 축과 평면, 중심과 주변, 구체적인 대립, 다시 말해서 시간-공간적인 대립 등 공간이 지니는 특성을 고스란히 전달받는다.”(295) 이중적 기계로서 몸은 먼저 밖의 세계에 오감으로 감응하는 존재로 미세에너지를 주고받으며, 또한 신진대사를 위해서는 대량에너지를 상호 교류한다.(296) 이리하여 우리의 오감은 자신이 생산하는 환경과 변화 속에서 이를 반영하고 수용하며, 만들어 진다. “물리적인 공간, 실천적, 감각적 공간은 이렇듯 후천적인 지적 지식의 투사에 대항해서, 지식에 의한 축소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재현하며, 재구성한다.”(302) 한편 이 몸은 원초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내포하는 본질로서 밖의 것에 의해 ‘재구성’되는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출발과 부정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 서양에서 몸의 역사는 다름 아닌 몸의 반항의 역사이다.”(302) 저항성을 특질로 하면서, 성찰적 사유의 땅에게는 결국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 불투명함 속에서 존재하는 몸은 분석적인 사

18) 마르크스에서의 ‘감각적 대상적 활동 존재’의 문화론적 함축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을 참조. 김경수, 「마르크스의 문화개념: 오감형성의 사회역사적 네트워크」 『철학탐구』 제38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5, 89-119쪽. 그리고 “피와 살”에 관한 포이에르바하의 담론에 관해서는 김경수, ‘새로운 철학’의 기반으로서의 자연의 개념: 포이에르바하의 「철학의 개혁을 위한 예비명제」 분석, 퇴계, 남명선생 500주년 기념, 제14회 한국철학자 대회보, 2001, 10/26-27, 참조.

고와는 달리, 체험과 체험된 차이 가운데 존재한다. 즉, 몸은,

“시간과 필요, 욕구 같은 순환적인 것과 사물, 물질적이며 추상적인 도구의 몸짓, 걸음걸이, 포획 같은 선적인 것을 하나로 묶어준다. 몸은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가운데, 사고된 것이 아닌 체험된 차이 속에서 존재한다. 반복적인 것 속에서 차이를 포착해 뉘으로써 반복적인 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명해 내는 것이 바로 몸이 아닌가? 반면 분석적인 사고는 차이를 배제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것이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지 인지할 수 없다.”(306)

이렇게 몸 자체의 체험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무한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근원으로 설정하고 보면, 그것을 경유해 만들어지는 각종 다양체들 역시 분석적인 성찰적 사유에게는 채 손 닿을 수 없는 곳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공간들에 대한 인식도 결국에 가서는 소위 합리적 인식 밖에 비-단일적인 것으로 불투명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 이 결과 몸이 만들어 내는 다중적인 공간들 상호간의 관계도 피라미드적인 지배와 선형적인 규정관계보다는 다층적이며 다질적인 것으로 드러난다.¹⁹⁾ 몸 밖의 공간들은 하나의 지배적인 공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회적 공간이 존재한다. 사회적 공간이라는 용어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의 총체”(152)를 가리킨다.²⁰⁾ 이 공간들은 다층적이며, 다질적

19) 르페브르는 여기서 지식의 수목구조로서의 피라미드형 체계, 그리고 그물망 구조로서의 수평 구조를 거론하고 있다. 『형식논리학과 변증법적 논리학』 2판 서문, XXVI, “Logique, topique, dialectique” 참조 Lefèbvre, H., *Logique Formelle Logique Dialectique*, 1946 et 1982, éditions sociales, Pari, 1982. 이것은 들뢰즈의 『천개의 고원』의 서문 격인 「리즘 론의 논리전개를 연상시킨다. 르페브르의 것은 초판이 1948년, 들뢰즈의 것은 1980년이다.

20) 언급한 바, 이런 공간의 다양성 자체를 체험의 다질성/다층성으로부터 도출해 낸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논리적 비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체험의 다층성에 대한 인식은 대상 자체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의 다층성을 간접적으로는

으로 “동질성-등방성으로 표현되는 고전적인 (유클리드식, 데카르트식) 수학적 공간이라기보다, 밀푼이유(mille-feuilles, 천겹, 겹겹이 사이사이에 크림을 넣은 프랑스 과자)처럼 ‘층층이 쌓인’ 다양성으로 부각된다.”(153) 르페브르가 이것의 실례로 드는 것은 시장이다. 즉, “구체적인 추상으로서의 사회적 공간은 망과 경로, 관계의 묶음을 통해서 ‘실재적으로’ 존재”하기에 시장들은 재래시장에서부터 세계시장에 이르기까지, 남대문시장 뒷골목의 암달러상으로부터 시중은행의 공식 환전소에 이르기까지 소멸되지 않고 중첩된다. 이리하여 “**사회적 공간은 서로 침투적이며/이거나 서로 포개진다. 이것은 사물이 아니**”라 하나의 은유이다.(153) 그에게서 사회적 공간들 간의 상호침투와 포개짐의 원칙은 매우 중요한 한 사실을 시사한다. 즉 그것은 분석을 위해 채취된 공간의 각 파편이 단 하나의 사회적 관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다양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리하여 “**사회적 공간은 이처럼 고도의 복잡함 속에서, 다시 말해서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단위, 상대적인 고정성, 움직임, 흐름과 파동,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침투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낸다. (...) 분석을 위해 채취된 공간의 각 파편은 단 하나의 사회적 관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다양한 관계를 보여준다.**”(156-157) 미시적인 측면에서 본 사회 공간들 자체는 미로처럼 얽혀 상호 간섭하는 복합적 관계의 한 단면을 드러내어 준다. 이 단면들은 일종의 다양체로서 등장하는 바, 이것은 ‘체험되어 지각되고 인식’된다(89). 이런 세 가지 과정이 서로 어우러짐을 통해 공간들은 언제나 생생하게 등장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이것들을 어떤 전일적인 한 추상적, 보편적 모델이 확립되어 뒤덮어 버린다면 이제 그것이 지닌 생생함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통해 확립된 생산관계가 다른 모든 사회적 관계를 압도하는 시점에서 이런 추상적 지

체험의 다층성에서 유추할 수 있다.

배는 현실이 되고 만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맥락상, 부정적 총체성의 담지자요 직접체인 ‘몸’이다. 그리하여 “전체로서의 몸은 담론을 포함하되 담론만으로 축소되지 않는 실천에 의거하여 분석되고, 스스로를 자기분석하며 자리매김하고 과편화된다.”(307) 체험이란 르페브르에게서는 달타이 이래의 전통을 이어받아 여전히 어떤 다른 지각 행위, 인식 행위 그것들 너머에 나머지(rest)를 남기는 매개되지 않은 직접성의 표현이었다. 그렇기에 몸에서 연원하는 여러 감각들, 행위, 몸짓 등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일은 이제 단순히 그동안 발달해 해온 합리적 인식도구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의, 새로운 형태의 분석기법이 필요하다.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공간에 대한 수많은 기호학적 접근과 더불어 르페브르가 앞으로 정신분석을 대체할 지도 모른다고 예언한 ‘리듬분석’이다. 이 리듬의 발생은 전적으로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일종의 에너지의 상호 유동적인 흐름의 결과이다. 말하자면 이것에서 “‘체험된 것’과 ‘인식된 것’이 서로 접근한다. 자연의 법칙, 즉 우리 몸의 법칙은 하나가 되며, 아마도 이른바 사회적 현실의 법칙 또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309)²¹⁾ “리듬은 그 안에 자신의 법칙, 즉 규칙성을 지니고 있다. 이 법칙은 공간, 리듬의 공간, 공간과 시간의 관계로부터 온다. 모든 리듬은 하나의 공간적, 시간적 현실을 보유하고 점유한다.”(309-310)

21) 그의 마지막 저작, 『리듬분석』, 89쪽도 인상적이다. “몸. 우리의 몸. 철학으로부터 너무도 천대받던 이 몸은 스스로 입을 열어 항의하기 시작했다. 몸은 생리학과 의학의 영역이었다. 몸은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리듬들의 꾸러미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만 리듬의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몸은 리듬들의 다발, 다른 말로 리듬들의 묶음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이런 어휘들은 미학적 손질이 가해진 듯한 느낌을 준다. 마치 예술적인 자연이 자신의 역사 전체를 통해 미를 - 여기서는 미의 하모니 - 예비해 왔다는 듯이 말이다.”, 앙리 르페브르,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정기현 옮김, 갈무리, 서울 2013, 89쪽.

그의 리듬분석에 대한 요청은 단지 음악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 일반에까지 이른다. 그가 이를 다룬 최후의 저작²²⁾에서도 어떤 답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대상세계, 우주와의 감응하는 몸이 사회화 되면서 차이와 반복 가운데 형성되는 특정 리듬에 주목한 것은 시적이면서도 기발하다. 계량화될 수 없는 어떤 본질이 이렇게 형성된 리듬들 가운데 숨어 있고, 이것의 성질을 객관화하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그 사물의 핵심에 도달한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런 거의 예술적 감응에 가까운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려는 시도는 그렇기에 언제나 신선할 따름이며, 또한 그것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분석도구나 기법을 고안하게 하고, 때로는 결과물조차도 긍정적인 경우도 분명 많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체험’을 신비화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발달해 온 합리적 개념도구의 사실(fact)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비합리주의’의 세계로 빠져들 위험도 충분히 안고 있다. 그렇기에 『리듬분석』의 불어판 서문의 저자인 르페브르의 친구, 르네 루로는 그의 리듬분석 시도를 앙리스크(Henrisques: Henri + risque / 영:risk)라고 이름붙이기도 하였다.²³⁾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개념도구들을 통해 열려진 세계 자체의 한계는 분명, 르페브르의 여러 시도들을 통해 뚜렷이 드러났다. 몸 자체만 해도,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노동력의 발원지일 뿐, 우주와의 감응과 그 표현의 주체라고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었다. 불행히도 마르크스주의에 내재하는 고유의 경제 환원주의적 경향²⁴⁾은 르페브르의 이런 시도들의 ‘대담함’과 그 가치를 역설적으로 잘 드러내 주고 있다.

22) 앞에서 언급한 그의 마지막 저서를 말한다. 앙리 르페브르,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정기현 옮김, 갈무리, 2013

23) 같은 책, 21쪽.

24) 마르크스에게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를 문화개념을 중심으로 발생사적/범주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앞에서 언급한 김경수의 「마르크스의 문화개념: 오감형성의 사회역사적 네트워크」를 참조.

4.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4.1. 공간적 실천과 재현

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감응하는 몸의 감각적-대상적 활동에 의해 생산되는 공간들을 지배하는 중요 원리는 『독일이데올로기』의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의 기획을 따라 생물학적 번식과 사회경제적 생산이다. “생물학적 재생산(가족)과 노동력의 재생산(원 상태의 노동자계급으로의), 그리고 생산의 사회적 관계, 즉 자본주의사회를 구성하는 관계, 이렇게 세 개의 층위”(179)가 뒤엉켜 실제적 공간 구성을 주도한다. 이렇고 보면 공간은 사회적 관계를 재현한다. 이런 구도를 일반화하여 르페브르는 다음과 같이 공간의 사회적 생산을 분석하는 세 가지의 틀을 제시한다.

즉, a) 공간적 실천. 한 사회의 공간적 실천은 그 사회의 공간을 분비한다. 공간적 실천은 지배하면서, 또 전유하면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공간을 생산한다. 르페브르가 예로 드는 근대적 공간 실천은 도시 변두리에 많이 건설되는 공동임대주택들이다. b) 공간의 재현. 개념화된 공간. 과학자, 도시계획가, 관료들, 사회공학자들의 구상에 의해 개념화된 공간. 이런 예로 르페브르는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들을 사례로 든다. c) 재현적 공간.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서 체험된 공간. 작가들과 철학자들의 공간. 재현의 공간들은 비언어적인 상징과 기호들의 다소 일관성 있는 체계화를 지향한다. 이런 방향의 건축으로 르페브르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든다.(86-87) 이런 세 가지 공간의 틀은 일반화된 것으로 시대마다 각각의 틀들을 적용해 해당 사례들을 분석해 낼 수 있다. 르페브르가 드는 서양 중세의 공간적 실천으로는 공동체와 이웃한 농촌마을, 수도원, 성순례길, 십자군 원정 등이 있다. 공간의 재현으로는 원근법, 천동설에 의

한 지구, 대지와 지하세계, 빛이 가득한 우주 등의 표현들이 있다. 마치 막으로 재현적 공간으로는 마을, 교회와 묘지, 시청과 들판, 혹은 광장이거나 도시의 망루 등을 서로 인접한 곳에 위치시킨 것을 들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공간생산은 시대마다의 공간생산 유형을 분류 연구하는데 유효하다.

4.2. 공간 생산의 역사와 대안 공간의 형성

다른 한편, 공간의 생산과 그 생산과정이 존재한다면 거기엔 반드시 역사도 존재한다. 이런 공간의 생산양식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절대공간, 역사적 공간, 추상공간, 모순의 공간, 차이의 공간 등으로 새로이 개념을 창안하여 적용하고 있다. 르페브르는 세계성, 전체성을 관통할 거시적인 구성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증법적인 이론 구성을 시도한다. 특히 그에게서 변증법적 구성이 의미 있게 등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어떤 질적 비약이 요청되는 곳에서다.

먼저 절대공간이다. 절대공간은 자연의 조각으로, 동굴, 산의 정상, 생물, 또는 강 등 내재하는 성질로 인해 선택된 장소로 이 내재적인 가치가 신성화되면 이는 곧 이러한 장소들이 지닌 자연적인 특성의 상실로 이어진다. 특성이 없어진 자연적인 공간은 정치 세력으로 채워진다.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농민이나 장인들) 공간을 경영하는 사람 즉 그 공간을 이용해서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을 조직하는 사람들(사제, 전사, 서기, 제후)과 일치하지 않는다.(100-101) 역사적 공간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절대공간, 혈연과 토지, 언어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의해서 생산된, 절대공간으로부터 상대화된 공간이다. 절대공간은 역사적 공간의 기층 혹은 침전물, 즉 재현공간을 실현시켜 주는 매체(종교적, 주술적, 정치적 상징주의)로 남게 된다. 말하자면 절대공간은 항상 근원으로서 상대적 공간, 재현공간에 우리를 제공한다. 르페브르는 이런 역사적 공간으로 국가

형태의 도시 공간의 당당함을 든다.(101)

추상공간은 사물과 기호의 총집합체로서 형식적인 관계, 유리와 돌, 시멘트와 철강, 각도와 곡선, 가득함과 텅 빈 등의 관계 속에서 ‘대상적으로 기능’한다. 이처럼 형식적이고 계량화된 공간은 자연과 시간(역사)에서 비롯된 차이는 물론 신체나 나이, 성별, 부족 등에서 비롯된 차이도 부정한다. 이와 같은 총체의 의미작용은 사실상, 의미를 벗어나는 상부의 미작용, 즉 괄목할 만하게 눈에 띄면서도 동시에 감추어져 있는 자본주의의 기능으로 이어진다. 지배적인 공간, 부와 권력의 중심 공간은 피지배공간, 즉 주변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102) 말하자면 차이가 질식되는 공간으로 권력에 의해 형성되는 지배공간을 의미한다. 추상공간은 그 안에서 태어나며 그 안으로 침투하는 것, 차별적인 공간-시간에 대한 부정의 관계로도 정의된다. 추상공간은 권력의 공간이 되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모순으로 인해 스스로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103-104) 추상공간이 지니는 모순은 부분적으로 매우 오래된 모순, 즉 역사적인 시간에서 기인하는 모순을 변형시킴으로써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오래전부터 있어온 모순을 좀더 심화시키거나 반대로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순이다. 이 오래된 모순으로부터 새로운 모순이 태어나며 새로운 모순들로 인해 추상공간은 종말로 치닫는다.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은 관계의 해체와 새로운 관계의 탄생이라는 이중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따라서 추상공간은 부정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에 대해서는 차이공간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105) 추상공간은 동질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차이점, 개별성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새로 태어나는 공간은 차이점을 강조함으로써만 그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차이공간은 추상공간이 멀리하려 하는 것, 즉 기능과 사회적 실천의 요소들과 순간들을 결집 시킨다. 이 차이공간의 형성이야말로 르페브르에

계는 사회적 실천의 결과물이다. 이 사회적 실천만이 문자 그대로 추상 공간이 차이를 말살하면서 지구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사회적 실천만이 차별화 능력, 즉 전략, ‘논리’, ‘체계’로 간주되는 경제 성장에 내재되어 있지 않은 차이점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 마디로 삶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공간을 생산해 내는 일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공간,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간, 즉 다른 사회적 삶의 공간이며 다른 생산 양식의 공간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이 가설은 과학과 유토피아, 인지된 것과 체험된 것 사이의 간극을 뛰어 넘으려고 한다. 이 가설은 ‘가능한 것-불가능한 것’, 객관적인 것-주관적인 것 사이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이들 간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한다.(105-116) 추상공간은 모순들이 발생하는 장소들의 총체이며, 이 모순들이 전개되고 갈갈이 분열되는 환경 자체이기도 하며, 겉보기에 그럴듯한 일관성을 대체함으로써 이 모순들을 은폐한다. 이 때문에 추상공간에서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강화되기도 한다. 사회-정치적 모순은 공간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 결과 공간의 모순은 사회적 관계의 모순을 실제적으로 만든다. 다시 말해 공간의 모순은 사회적 정치적 이해와 세력의 갈등을 표현한다.(517-519) 결국 사회적으로 형성된 추상공간, 하버마스 식으로 보면 식민화된 생활세계에는 사회적 실천 및 그 안에 독특한 자기형성 구조를 통해 모순의 공간이 형성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대안공간으로서 차이공간이 형성된다.

5.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공간운동의 변증법적 구조

절대공간에서 역사적 공간, 추상공간에서 모순공간, 차이 공간 등으로의 이행에서 사용되는 변증법의 구조는 일단 이런 공간들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다른 곳

에서 그것의 형식을 보다 자세하게 논의한다. 즉 제6장, 「공간의 모순에서 차이의 공간으로」에서 그는 양-질의 모순은 (이항적) 대립이 아닌 3분법적 움직임으로 정의된다고 주장한다.²⁵⁾ “즉 소비공간에서 여가를 통한 여가 공간에서의 공간의 소비로, 또는 일상적인 것에서 축제를 통해 비일상적인 것으로, 노동에서 노역의 중단은 (반은 허구이고 반은 실재인) 문제제기를 통해서 비노동으로 이어지는 식이다.”(503) 그는 여기서 실질적 공간을 연구하면서 ‘차이’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킨다. 그의 자기 확인에 따르면 이 이론은 단지 인지된 것에서 체험된 것으로의 이행, 즉 “삶이 빠진 개념에서 개념이 빠진 삶”으로의 이행을 준비한다. 이것은 그에 의하면 “‘논리학에서 변증법’으로 이행하며, 이 두 가지의 분절 지점에 위치함으로써 둘을 결합시킨다. 한편으로는 일관성 이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동의반복인) 동일성 이론에, 다른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적대적인) 모순 이론과 맞닿아 있다.”(528)

그가 말하고 있는 바, 논리학에서 변증법으로의 이행은 형식논리학에서 변증법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이를 그는 현실적인 공간에서 서로

25) 그의 3중 변증법은 이항대립에서 바로 궁극적인 동일성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대립이 보존/고양된 제3점에 도달하고, 새롭게 성립된 이항 대립 속에서 새로운 부정, 지양 운동이 지속되는 ‘변증법적 부정적 통일과정’의 매개지점을 더 분명히 부각시킨 것이다. 자세하게는 Christian Schmid의 다음 논문을 참조. Henri Lefebvre's Theory of the Production of Space: Towards a three-dimensional dialectic, in *Space, Difference, Everyday: Reading Henri Lefebvre*, Routledge, New York/Oxon, 2008, pp. 27-45. 르페브르는 『형식논리와 변증법적 논리』(Logique Formelle Logique Dialectique)의 서문에서 12개의 테제 형태로 ‘변증법’을 요약하여 제시했다. 그 중 4번째 테제가 이 변증법적 통일의 제3점을 다룬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변증법이란 철의 법칙’을 주장하는 ‘역사 자동진보주의’에 대한 대응책은 될지언정, 여기서 헤겔 변증법에 대한 텍스트 내재적인 비판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cf. Lefebvre H., *Twelve Theses on Logic and Dialectic*, in *Key Writings*, New York/London, 2003, pp. 57-61. 장세룡의 앞의 논문(2006)에서도 이 삼중변증법(trialectic)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하지만 “르페브르의 변증법에서 시간의 모순과 공간의 모순은 함께 지양”(303)된다는 그의 평가에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구별되는 ‘차이’이론으로 정식화한다. 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그는 ‘최소한의 차이’와 ‘최대한의 차이’사이의 구분, 귀납적인 차이와 생산된 차이 사이의 구분을 나눠 설명한다. 첫 번째 것은 논리적, 수학적 집합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1과 1 사이의 차이는 반복에 의한 차이로 최소한의 차이이다. 그러나 유한수 기수와 서수, 초한수(初限數) 기수와 서수의 차이는 최대한의 차이이다.²⁶⁾ ‘귀납적인 차이’는 르페브르에 의하면 특정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전체나 체계 내부에 존재한다. 이 차이가 전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의 집합 안에서 반복이나 빈도에 의해서 연소되는 요소들의 차이가 생겨난다. 그는 이런 것의 예로 소형 주택들이 들어선 교외 지역 내부에 지어진 주택들의 다양성, ‘시설’ 내부에 마련된 특화 공간의 다양성, 유행 일반에 의해서 부추겨 지는 의류 부문 유행의 다양성 등을 든다. 한편 ‘생산된 차이’는 체계의 파열을 전제로 한다. 이러저러한 전체가 자신이 지닌 틀을 넘어서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전체를 만들어 내는 식이다. 온전한 것들의 전체가 조각난 것들의 전체를 만들고, 그것은 다시 ‘측정할 수 없는 것들’, 초월적인 것들, 초무한적인 것들의 전체가 된다.”(528) 역사적 시간을 통해 보면 “하나의 생산양식 내부에서 귀납된 차이는 처음엔 생산된 차이와 공존하다가, 차츰 생산된 차이가 귀납된 차이를 종식시킨다.”(529) 르페브르가 드는 구체적인 역사적 예를 살펴보면 그가 이 차이를 통해 무엇을 설명하려 했는지 쉽게 이해가 간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중세 사회 내부에서 축적이라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새로운 생산양식을 예고하는 차이는 이렇게 해서 점점 축적되고 결국 떠들썩한 과도

26) 초한수는 모든 유한수보다도 큰 수를 말한다. 초한수는 절대적 무한일 필요는 없으며 그 안에서도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수, 유리수, 실수의 집합 등이 그것이다. 기수는 두 집합이 일대일 대응 관계를 가질 때 대응되는 원소의 수를 말한다. 유한·무한집합에 관계없이 두 집합이 일대일 대응이면 같은 기수를 갖는다.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이다.

기를 야기하며, 급기야 사회와 기존 생산양식(서유립)의 과열을 가져온다. 변증법적 움직임은 다룬 고전적인 이론에서, 이 계기는 점진적인 변화(양적 변화)에 의해 준비된 질적 도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531)

이렇고 보면 르페브르는 구체적 공간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지배되고 어떻게 그것이 자본주의적 상품사회라는 틀 안에서 공간화 되는지, 그 내재적 동학을 밝혀내려 한 것이다. 그는 사회의 공간장악, 지배형식의 동학을 설명하기 위해 변증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변증법의 형식이 3분법의 형식이었다. 즉 ‘정-반-타자성의 공간-종합’의 형식 등으로, “타자성의 공간”을 새로이 추가하여 그 당시 지배적이었던 ‘정-반-합’의 스탈린주의적인 변증법적 발전도식을 우회하려고 시도했다. 립 쉘즈는 다음과 같이 르페브르의 삼분법적 변증법Trialectic을 도식화 했다.²⁷⁾

I. 긍정 (정:Thesis) 일상적 실천과 지각	II. 부정1 (반: Anti-Thesis) to 분석적 이론과 관습들	III. 부정2 (타자성) to 완벽히 살아난 계기들
IV. 종합(Synthesis) 사회적 총체성		
I. 긍정 예: 일상적 실천과 지각	II. 부정 (분석적 이론과 관습들에 대한)	IV. 분석적 종합 말하자면 이론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사회적 총체성
III. 부정의 부정 (타자성) 양자는 예견되지 않는 충분히 체험된 계기들로 조율됨		

27) 아래의 설명 및 도표를 포함해서 Rob Shields, *Lefebvre, Love and Struggle: Spatial Dialectics*, London 1999, pp. 119-120쪽 참조.

엥겔스의 정식에 따르면 변증법은 “긍정-부정-부정의 부정”의 도식에 따라 움직인다. ‘부정의 부정’이란 세 번째 용어는 대안의 길로, 긍정-부정의 이원론을 대체, 재구성하거나 분해한다. 이런 변증법 dialectic은 ‘삼분적 변증법 trialectic 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르페브르의 주장이다. 그가 이렇게 변화시킨 변증법의 운동형식 가운데에서는 특히 타자성을 위해 한 단계를 더 개방시켜 놓았다. 사회공간에 대한 르페브르의 예를 사용하면 실천, 사유와 상상된 공간은 사회적 공간화 내에 모두 종합된 요소들이다. 그러나 그의 세 번째 용어는 실제에서는 앞의 두 가지와 동등한 지위를 갖지 않고 훨씬 더 ‘부정의 부정’으로 다뤄지고 있다. 지각하고 인지하며 체험한다는 것은 실천, 사유, 그리고 상상한다는 것을 기술하는데 쓰였다. 세 가지는 변증법적 모순으로, 즉 일상적 지각/실천대 공간이론/완벽하게 체험된 공간이란, 전적으로 타자인 초현적인 계기들에 의해 상대화된 개념들로 생각될 때 더 의미가 있다. 전체적인 종합은 4번째 계기, 공간 그 자체, 공간화에 있다.

르페브르가 그의 『공간의 생산』에서 공간의 사회적 생산을 주제로 하여 펼쳐 보인 변증법적 사유는 헤겔 『논리학』의 직접적인 반박으로 읽힐 수는 없다. 그가 시도한 변증법의 확장 시도는 헤겔이 그의 『논리의 학』의 본질론 「반성규정」에서 정교하게 발전시킨 모순에 근거한 변증법적 운동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의 논의는 위에서 소개한 룽 쉴트의 정리에서 알아차릴 수 있듯, 전후 프랑스에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던 엥겔스의 『자연변증법』에서의 변증법에 대한 축약 버전²⁸⁾의 개량으로 볼 수 있다. 실제적 도시 공간의 성립과 발전-전개, 소멸, 중심 이동 등의 현상을 기술해 내려는 그의 시도가 무시간적-무공간적 zeitlos und raumlos인 헤겔 『논리의 학』의 변증법적 서술방식과는 다른 논리구성을 거의 필연적이게 만든다. 르페브르가 공간적 실천을 분석하면서 시도한

28) Vgl. Engels, F., *Dialektik der Natur*, MEW 20, S. 307, SS. 348-353.

변증법의 형태변화는 바로 이것에 기인한다.

6. 나가는 말

역사적으로 헤겔의 변증법에 가해진 비판들의 상당부분은 바로 『논리학』에서 완성되는 절대적 반성운동의 형식으로서의 “절대적 방법”이 현실세계의 운동을 포착하고 서술하는데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자주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비판들의 원조 격인 포이에르바하와 마르크스는 변증법의 공간화의 전략을 택하였다. 마르크스는 1843년 그의 청년기 문건인 『헤겔법철학 비판』에서 “사변에서 경험으로, 경험에서 사변으로 이행”을 무차별적으로 수행한다고 신랄하게 『논리학』에서 『법철학』으로의 이행을 비판한다. 그것은 결국 동일성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변철학 풍의 서술방식의 포기로 이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헤겔 체계 서술의 문제인 ‘신적 자기서술’, 혹은 신의 선형철학적 해체를 서술하는데 사용한 그의 변증법적 방법이 포이에르바하나 마르크스, 20세기 후반의 헤겔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 수용에 근본적인 난점으로 등장한다. 다른 한편, 변증법을 유지하면서 변증법의 공간화를 시도한 이들에서의 문제는 사실, 문제제기와 함께 필요한 자원은 헤겔의 『논리학』에서 차용해 갔지만, 그들이 이를 철학적으로 충분히 발전시킨 것은 아닌 것에 있다. 그것은 르페브르 역시 마찬가지다. 그의 공간의 변증법 개념 역시 그의 선행자들과 같은 구조에서 시작되지만, 그럼에도 사변변증법과 현실변증법 간에 응당 있어야 할 범주 운용의 차이는 철학적으로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즉 사변변증법에서 발달된 변증법의 서술 구조를 가지고 현실의 운동을 서술해야 한다는 난점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정의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그것은 헤겔 변증법 자체가 『논리학』의 전제가 자연임을 인정하고 차이

를 근본적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첫 서술 범주가 추상적 동일성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이에르바하와 『자본』의 후기 마르크스가 그랬으며, 르페브르, 그리고 반헤겔주의자 들뢰즈²⁹⁾, 그에 영감을 받은 네그리³⁰⁾ 역시 그랬다. 이들은 출발범주로서 동일성 대신 차이, 혹은 몸, 구체적인 현실적 공간 등을 받아들였다.

나아가 르페브르는 공시적(synchronic)인 수준의 사회적 공간들 간의 운동을 개념파악하여 서술하는 것에 와서는 헤겔이 『정신현상학』, 『논리의 학』, 『법철학』 등 거의 전 저작에 걸쳐 노력하듯 그렇게 엄격하게 변증법적 범주를 이용하여 ‘사태’(Sache)의 운동을 전면적으로 시계열화하지는 않는다. 그보다 그가 행한 것은 차라리, 유체역학이나 수학 등에서 개념들을 차용해와 변증법적 범주들의 운동을 확장하고, 세련되게 만든 것이다. 그는 각 지층들의 운동을 단일 범주의 변증법적 운동으로 개념 파악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를 다층적이고 흘러 상호 침투하는 불규칙한 운동으로 보고 이를 당대 인접 학문에서 발달한 방법으로 포착, 서술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한편 사적 유물론 수준의 통시적/거시적인 전망에 다다르면 르페브르는 예의 변증법적 사유를 동원한다. 그는 공시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섬세한 차이들을 밀피유(millefeuille) 빵처럼 겹쳐진 지층 안에서 작동하는 귀납적 차이로 이해하고 이들을 그 안에서 점차 성장해 나가는 생산적 차이와 대립시킨다. 그 과정에서 이 생산적 차이가, 기존의 차이들의 총합으로서의 귀납적 차이들을 능가하게 되면, 양적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촉발하여 결국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의 혁신적 이행이 가능해 진다. 이렇게 해서 통시적(diachronic)인 측면에서도 변증

29) 김경수, 「지형학적 시간과 공간에서의 변증법의 작동방식: 들뢰즈 독해」, 『철학』 71집, 한국철학회, 2002, 101-124쪽 참조.

30) 김경수, 「매체혁명과 공공적 이성의 구조변화 - 제국과 다중, 그리고 변증법의 몰락: 네그리의 경우」, 『철학연구』 29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5195-220쪽 참조.

법적인 범주 운용이 가능해 진다. 자칫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두 대립적인 부분들인 공시적인 부분과 통시적인 부분의 연결/융합을 그는 ‘귀납적 차이 안에서 성장하는 생산적 차이’란 개념들을 구사해 훌륭히 이뤄냈다. 결국 이 생산적 차이란 마르크스의 언어로 표현하면, ‘자본주의 대내에서 성장하는 모순의 운동’으로 바꿔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차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간의 생산』에서 각 행과 행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획을 가능하게 해 준다.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회(다른 생산양식)를 만들어 가는 기획에 다름 아니다.”(587)

종합하면, 『공간의 생산』에서의 그의 시도는 구조주의/후기구조주의 시대에 여전히 변증법을 거시적인 역사구성에 적용하면서도 성공적인 이론적인 생산물을 산출한 드문 이론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³¹⁾ 그것은 단지 방법-변증법에만 아니라 내용 그 자체에도 해당된다. 그는 실제적인 도시-국토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현 공간, 감각 공간의 창출까지를 그의 공간 생산론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시학이나 지리학은 물론, 오감을 사용하는 각종 예술, 과학에까지도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했다.

31) 들뢰즈를 매개로 한 이런 방향으로의 시도로는 다음의 줄고를 참조. 김경수, 「지형학적 변증법의 구상: 지형학적 시간과 공간에서의 비-사변적 변증법의 운동방식에 대한 탐구」, 『현대사상: 변증법』 제7호, 현대사상연구소, 2010,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김경수, '새로운 철학'의 기반으로서의 자연의 개념: 포이에르바하의 「철학의 개혁을 위한 예비명제」 분석, 퇴계, 남명선생 500주년 기념, 제14회 한국철학자 대회보, 2001, 10/26-27.
- 김경수, 「니체의 진리론과 유물론, 그리고 포스트모던」, 『인문과학연구』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141-160쪽.
- 김경수, 마르크스의 문화개념: 오감형성의 사회역사적 네트워크, 『철학탐구』 제38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5, 89-119쪽.
- 김경수, 「매체혁명과 공공적 이성의 구조변화 - 제국과 다중, 그리고 변증법의 몰락: 네그리의 경우」, 『철학연구』 29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5, 195-220쪽.
- 김경수, 「벤야민의 '역사철학 테제'의 변증법적 재구성: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맑스의 현실변증법과 관련하여」, 『문예미학』 8호, 문예미학사 2001.
- 김경수, 「지형학적 변증법의 구상: 지형학적 시간과 공간에서의 비-사변적 변증법의 운동방식에 대한 탐구」, 현대사상: 변증법』 제7호, 현대사상연구소, 2010.
- 김경수, 「지형학적 시간과 공간에서의 변증법의 작동방식: 들뢰즈 독해」, 『철학』 71집, 한국철학회, 2002, 101-124쪽.
-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옮김, 책세상 서울, 2000.
- 르페브르, 앙리,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에코리브르 서울, 2011.
- 르페브르, 앙리,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정기현 옮김, 갈무리, 서울 2013, 89쪽.
- 소자, 에드워드,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이무용 외 옮김, 시각과 언어: 서울, 1997.
- 장세룡,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 역사이론적 '전유'의 모색」, 『역사와

경계』 58권, 부산경남사학회, 2006, pp. 293-325.

헤겔, 『법철학』 I, 임석진 역, 지식산업사, 서울 1989.

2. 국외 문헌

Döring, J., Thielmann, T., (hg.), *Spatial Turn: Das Raumparadigma in den Kultur- und Sozialwissenschaften*, Bielefeld, 2008.

Engels, F., "Ludwig Feuerbach und der Ausgang der klassischen deutschen Philosophie" in: Karl Marx/Friedrich Engels - *Werke*. (Karl) Dietz Verlag, Berlin. Band 21, 5. Auflage 1975, unveränderter Nachdruck der 1. Auflage 1962, Berlin/DDR.

Engels, F., *Dialektik der Natur*, MEW 20.

Feuerbach, L., *Über die Vernunft*(1826), in *Gesammelte Werke*, hg. von Schuffenhauer, Berlin 1981, Bd. 1.

Foucault, M., "Of Other Spaces(1967)", *Diacritics* 16, 22-27 (tr. from the French by Jay Miskowic).

Foucault, M., "Questions on Geography", in C. Gordon (ed.),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pp. 63-77.

Habermas, J., *Nachmetaphysisches Denken*, Frankfurt a/M, 1992.

Henri Lefebvre's Theory of the Production of Space: Towards a three-dimensional dialectic, in *Space, Difference, Everyday: Reading Henri Lefebvre*, Routledge, New York/Oxon, 2008.

Lefebvre H., *Twelve Theses on Logic and Dialectic*, in *Key Writings*, New York/London, 2003, pp. 57-61.

Lefebvre, H., *Logique Formelle Logique Dialectique*, 1946 et 1982, éditions sociales, Pari, 1982.

Lefebvre, H., *Stalin und seine Interpretation des Marxismus*, in *Probleme*

- des Marxismus, heute*, 6 Aufl. Frankfurt a/M, 1971. (org. Fr. Problèmes actuels du Marxisme, 1958), S. 116-122.
- Lefebvre, H., *The Production of Space*, tr. D. Nicholson-Smith, Blackwell, Oxford/Massachusetts, 1991.
- Lefebvre, H., Zurück zur Quelle: Marx, b. Methode, in *Probleme des Marxismus, heute*, 6 Aufl. Frankfurt a/M, 1971.(org. Fr. Problèmes actuels du Marxisme, 1958).
- Marx, K., *MEGA2*, I/2.
- Shields, R., *Lefebvre, Love and Struggle; Spatial Dialectics*, London 1999.
- Soja, E., Vom „Zeitgeist“ zum „Raumgeist“, New Twists on the Spatial Turn, in *Spatial Turn: Das Raumparadigma in den Kultur- und Sozialwissenschaften*, hg. von Jörg Döring, Tristan Thielmann, Bielefeld, 2008. S. 241-262.

**Verräumlichung der Hegelschen idealistischen Dialektik:
Untersuchung zur *Produktion des Raumes* von Henri Lefebvre**

Kim, KyoungSoo (Korea Univ.)

In seinem Buch *Produktion des Raumes* hat Lefebvre, H., den sozialen menschlichen Leben selbst als eine Geschichte der Produktion des Raumes rekonstruiert und deren Entstehung, Entwicklung und Perspektive kritisch analysiert. Der Raum wird sozial produziert, jede Gesellschaft bringt im Grunde ihren eigenen Raum hervor. Dieser Prozess selbst läuft sich auf dem Feld der widersprüchlichen Bewegung von der Produktionskräfte und Produktionsverhältnisse. Der menschliche Körper stellt als ein Subjekt der Produktionakt deren Ausgangspunkt und gleichzeitig Endpunkt dar. Im Produktionsakt des Raumes findet sich drei Art; räumliche Praxis, Repräsentation des Raumes, repräsentatives Raum. Die Bewegungsform in den synchronisch aufgeschichteten Räume können nicht direkt als dialektisch angenommen, sondern eher als ein 'Netzwerk' gefasst werden. Zur Untersuchung der diachronischen, entwirft Lefebvre den Begriff vom absoluten, geschichtlichen, abstrakten, und widersprüchlichen Raum, im letzten den Raum der Unterschiede. Diese Bewegung der räumlichen Geschichte begreift Lefebvre mit einem Begriffsmittel der Dialektik. Er bringt den diachronischen und synchronischen Teil der räumlichen Geschichte gegeneinander mit dem Begriff der „wachsenden produktiven Unterschiede inmitten der induktiven Unterschiede“ in Verbindung. Dieser Versuch, wo noch Anwendung der Dialektik auf dem geschichtlichen Vorgang zu experimentieren ist, hat nicht nur Erfolg in

der Darstellung der räumlichen Geschichte, sondern auch in der kritischen Wissenschaft überhaupt im Zeitalter des Poststrukturalismus gegolten werden, indem aussichtreich ein alternativer Raum zum abstrakten Raum im kapitalistischen Herrschaft entwickelt ist.

Key words: time, space, spatial turn, marxism, geography, Hegel, dialectic, difference, class struggle, capitalism

김경수 E-mail: shigong109@nate.com

투 고 일	2015년 07월 20일
심 사 일	2015년 07월 30일
게재확정	2015년 08월 17일